

열린세상

정진탄

뉴미디어본부장 겸 논설위원



자주 다니는 버스정류장 바로 뒤편에 허름한 과일가게가 하나 있는데, 50대로 보이는 남자 주인이 꽤 부지런하고 친절해 장사가 잘 되는 듯 보인다. ‘나도 과일장사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을 받곤 한다. 특별하디랄 것 없이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놓고선 오려진 종이박스에 5,000원, 10,000원 이렇게 가격을 써놓았다. 그런데 행인들, 특히 아줌마·아저씨들이 헐갸헐갸하며 안 살 것처럼 하다가 사는 모습이 재미있고 저런 ‘착한 거래’를 해봄직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은 스치는 수준이 아니라 진정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긴다. 최근엔 과일가게 오픈을 플랜B로 하고 김밥가게를 대학가 주변에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봤다. 부지런하고, 매너 좋고, 무엇보다 맛이 최고면 손님이 안 오리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김밥 맛을 당장 최고로 낼 수 없으니 음식 솜씨가 탁월한 예쁜 아줌마 한분을 섭외 해놓았다. 여자하면 몇 평 안 되는 조그만 공간을 얻어 장사를 해보려는 심산이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안 해본 이 같은 구상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진솔한 삶을 제대로 느껴보자, 이리저리 부대끼는 셀러리맨의 애환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교감을 해보자는 소망이다.

사회적 가면 벗고 교감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유식하게 보이고, 멋진 잡(Job)을 잡아 폼 내볼까 하는 생각이 지

왜 우리는 문제를 못 푸는가

배적이었다. 지적인 현란함을 좋아해 무조건 하루 1권씩 책을 사가지고 와 집에서 독파하겠다는 다짐을 하고선 실천할 때가 있었다. 당시엔 그것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다 놓아버린, 비워버린 후의 액면 그대로, 낱것 그대로가 좋다. 욕망이 들끓을 때 무엇을 채우려고 욕심 부렸지만 지금은 무엇을 빼내려고 힘을 쓴다. 물론 비움은 힘을 쓰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 하자면 그렇다. 다 비우면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이는 역설을 느껴본 분은 안다. 길거리 과일장사, 김밥장사를 계획하는 것은 그런 연장선에 있다. 사회생활의 가면을 벗겨내고 못 사람과 교감하며 삶에 내재한 온전함, 고유성, 본질을 느껴보기 위한 작은 바람이다.

이런 시작은 한국정치, 광주와 전남의 복잡다기한 이슈를 대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잣대도 틀이대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 본래의 눈, 다시 말해 양심으로 보면 대상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자면 좌파의 눈으로, 우파의 눈으로, 민주당의 눈으로, 국민의힘 눈으로 틀을 씌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봐보자는 거다. 유명 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거나 기존 이론에 의존해 당대의 삶을 해석하는 것을 멈춰보자는 거다. 3급 시대와 민주화 투쟁시절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느냐 하는 시각의 틀, 준거의 틀을 한번 치워보자는 거다.

정지인이 전통시장을 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이 덧씌워진 시각이 아닌 순수한 열정으로 일하는 시장 사람의 말을 경청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론적인 현란한 말이 아니라 진솔한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청취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싶다. 문제는 그 속에 답을 갖고 있다. 개인 문제는 그 개인에게 고유한 것이며, 광주·전남 문제는 광주·전남에 고

유한 것이며, 한국 문제는 한국에 고유한 것으로, 남의 것은 참조용일뿐 해답을 제시해줄 수 없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결국 고유함을 간직한 주체, 즉 해당 개인과 광주·전남, 한국 당사자에게 주어져 있다. 많이 배웠다는 분은 남의 것만 많이 봐서 헛똑똑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지식기술자는 사실 별 효용이 없고 일만 복잡하게 하는 부류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권장돼야 한다. 단체장이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택시비 인상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해야 하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버스가 멈췄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직접 보고 듣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혼잡한 백화점 매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여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사안의 고유성을 직접 보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인 것이다.

시각·준거의 틀 탈피

강기정 광주시장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 또한 같은 맥락이다. 광주가 갖고 있는 문제의 고유성을 보려는 시도다. 강 시장은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언급해왔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와 다른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철학적 선언이다. 복합쇼핑몰 건립·공공기관 혁신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퇴행적 시각을 탈피하려는 결연한 의지다.

우리는 어렵고 간단치 않은 문제에 부딪히면 그럴싸한 이론적 틀, 관행에 의존하는 데 익숙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조용으로 머물러야 한다. 무엇인가 해결하고 세로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다 비우고 고유성과 만나야 한다. 삶의 문제이든, 도시 문제이든 독특한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선 같은 상황을 자주 맞닥뜨릴 것이며 거기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강기정 시장 특강의 탐색

가 마중물이 되겠다. 소득은 늘려주고 지출은 줄이고, 가계와 기업은 더하기로 했다. 창업펀드 조성, 광주역 창업벨리조성, 창업페스티벌, 삼성 C-Lab아웃사이드 광주 등 창업생태계를 키우겠다. 또한 뿌리산업 등 기존산업에 미래 신산업으로 접목시켜 육성하겠다. 이와 같은 올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자기중심적 사회에서 이제는 서로가 배려하고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5,000명의 광주 공직자와 함께 해주기 위해 공직자와 타-타임제 등으로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정을 실증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태평양과 같은 넘쳐흐르는 자신감에 특강이 끝나자 만장한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광주와 시민들의 미래, 육체적 생명력인 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한 기획과 정책은 탁월하였다. 그러나 인간이란 건강한 인체에 정신적인 생명력인 예술이 스며들어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광주·전남은 30년간 전국 지역 문화인 교류대회(참가자 7,000여 명)를 통하여 대한민국 문화메카가 광주·전남임을 정립시켜 이제는 문화메카 메모리 파크건립을 위한 기초 조사가 착수되었다.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시정을 논하면서 예술 분야 발전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무척 아쉬움이었다. 문학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 명언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기획과 진취적인 사고력을 갖춘 강시장님을 이력증거처럼 하는 시증의 이야기가 무척 오늘날에 아쉽다 라고나 할까!

강 시장님과 동행인 고희 재광향우회 초대 사

무국장 등 사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완석 회장은 말한다. 같은 고향 선배 친 혈족 같이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다면서, 고향인 거금도란 큰 도서로서 돈이 많다고 불리진 이름이며, 수산물이 풍부하여 오랜 옛적부터 일본으로 김 등의 해산물 수출은 물론이며 넓은 농토로 농산물 등 거금도 주민들은 가난을 모르고 살아온 도서민들이 한 가족 같이 웅기종기따사롭게 모여 사는 곳이요, 또한 강기정 시장과도 함께 자란 곳이어서 그저 허물없이 아우라고 한다. 막내로 태어난 시장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유년기를 보내면서 정직 성실로 무엇인가 해내어 그의 족적이 길이 남을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한완석 회장은 자신 있게 말해주고 있다.

이러하듯 사람이 어찌 단점이 없겠느냐. 어려운 사회에 광주가 거금도 도서민들이 서로서로 가족애로 살아오듯, 동그런 어머니 품속같은 무등산을 우리러보며 우리 광주시민들 역시 도란도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자기적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형아, 아우여 하며 누구에게나 있는 단점들을 감싸주며 예술인들의 합창으로 예술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게 해 아름다운 광주, 행복 한 삶을 누리는 광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리고 광주·전남이 문화메카로 전국 문화인들로부터 정립됐으니, 그 정신문화의 토대 위에 찬란한 꽃이 피어나 광주의 명성이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 문화메카 우리 광주여 세계의 본보기가 되기를 예술인들이 두손모아 기원하시기 바라며, 우리모두가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가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예술인 여러분 특강 탐색에 공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나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 장 朴 哲 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 善 男		편집국장 姜 聲 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재외동포청 유치전, 총력 기울여야

광주시는 732만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이 광주에 유치되면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인권·포용도시 광주의 면모와 부합하는 호기를 만나게 된다.

이번 개편안이 공포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이 기간에 재외동포청이 들어설 곳이 결정된다. 광주를 비롯해 인천, 경기 안산 등이 유치에 도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재외동포청 유치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강력히 추진해왔다. 특히 국제공항과 항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의 접근 편리성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등 만만찮은 경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광주시도 입지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동포 귀환운동을 벌

여 900여 명의 고려인 동포 국내 귀환을 돕고 국내 정착 지원사업 등을 펼쳐 국내외 언론의 조명을 받았으며 민주·인권 도시로서 국제기구, 해외도시와 활발한 교류와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포용도시 광주는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풍부한 인프라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재외동포청 입지의 최적지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거의 없는 광주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배려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기관 본부가 없는 광주에 재외동포청이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광주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의미다. 인천시 등이 재외동포 단체 관계자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는 만큼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 단체는 물론 정부 관계 부처를 상대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는 한편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도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를 다지는 등 역량을 최대한 집결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청이 광주에 들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지역대학 소멸 위기 지자체와 상생을

지역대학의 고사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최종 등록률은 80%남짓에 그쳤다.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율도 크게 떨어져 사실상 존립이 어렵게 됐다는 게 통론이다.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미 대학 입학 정원이 입학가능 자원보다 1만 5,441명이나 많았다. 올해는 입학 자원이 전년도보다 4만 6,891명 감소했으니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규모 미달 사태는 필연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주요 대학 못지않은 명문으로 대접받던 지역 대표급 국공립대도 상당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47만 9,376명인 입학 자원은 2024년에는 37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지방대학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정보도 지방대 위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학과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오히려 지방대 위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 수도권의 위기를 부추기는 일이다.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서울·수도권 집중’ 기조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인수위가 당초 약속한 지방시대 구현 정책 중 제대로 시행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의 허브로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자 산업과 경제의 중심이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해당 지역사회가 흔들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 위기의 해법을 교육부에만 요구해서도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지방도시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대학과 교육당국 모두가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 지자체도 시민단체, 지자체, 기업 등과의 협력해 서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소멸의 주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우수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서둘러야

기고



서임석

광주시의회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벨은 위급 상황에서 벨을 누르거나 비명이나 파손음을 감지하는 감지장치를 통해 출입구의 경광등이 작동됨과 동시에 IoT 통신망으로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과 연결되는 장치이다. 경보를 수신하게 되면 경찰과 통화도 가능하며,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광주시 환경공단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 초 산하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범죄 예방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시도 4월부터 열리는 순천만 국가정원박

람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여 긴급하게 50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확정했다. 이 외에도 고희군 산하 54개 화장실과 순천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16개 공중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벨 의무설치 법률 시행에 대비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에 있는 공중화장실 4만 7,000여개 중 비상벨이 미설치된 화장실이 72%에 달한다. 지자체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비상벨을 도입하지 않으면 상위 지자체장 또는 국가의 감사, 지자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비상벨이 위급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제는 작동될 수 있도록 비명감지 및 음향분석 기능이 필요하며, 실시간 상시점검과 정기점검도 이뤄져야 한다. 비상벨을 먼저 사용해본 관계자들은 고장파손, 정기점검, 회선 문제로 인한 일시정지 등 도입을 하고도 신경 쓸 부분이 많아 제품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 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과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은 더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안전 인프라로 비상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주시부터 빠르게 설치를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